

## 한양대학병원 편

서울시내에서 공기오염도와 소음도가 가장 낮은 성동구 한강변에 한양대학 병원이 새로 설립되어 환자흡수에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

금년 5월 3일 개원한 이 병원은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의 넓은 대지위에 최신품격으로 건축된 내화식 텍스 칠근콘크리트 건물, 총 2萬여평으로 된 22층의 병원과 의과대학 건물, 내부설계와 시설은 최신 미국종합병원을 따랐다고 한다.

병원입구에 썩 들어서면서 부터 아직 손때 묻지 않은 벽과 의자와 모든 기물이 새 병원을 의미하는 듯 약간은 어설픈 기분이 든다.

기자는 의식적으로 에레베이터에 올라 이 병원의 최신시설을 첫단계로 음미해 보며 3층 간호과장실을 찾았다.

늘씬한 키에 과단성 있어 보이는 이곳 梁莫芝간호과장님의 모습이 보이며 반갑게 맞아 주셨지만 개원초부터 밀어닥치는 환자때문에 눈코 뜰 사이가 없다시면서 잠깐 기다리라기를 1시간여, 환자제일주의라는 의미인듯 직장탐방을 나온 기자는 겨우 시간을 틈낼 수 있었다.

개원 한달만인 이 거대한 병원의 입원능력부터 말씀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다.

총 301개의 입원실을 갖추고 806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각급 병실은 신형침대와 병실

성격에 따르는 원건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건 건물 내부가 중앙에서 자동조절되는 공기냉온방식을 택했으며 완전 방화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을 지내신 李炳熙의로 원장, 전 연세의대 임상교수이셨던 朴錫璣병원장을 비롯해 80명의 간호원과 40명의 전문의, 레지던트 30, 인턴 18, 보조간호원 50, 일반직원 211명이 현재 일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로 뽑히는 더 늘 것이라 한다.

이 병원의 특색으로는, 국내 종합병원으로서는 가장 많은 15개의 수술실을 갖고 있으며 구급환자를 위해 3층(지상 1층)에 구급차가 탈출 수 있게 되어 있고 구급실 전용 주차장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것, 인큐베이터(인공보육기) 50대를 갖춘 국내 최대의 소아과시설은 한양대학병원의 또하나의 자랑이다.

전 병원의 외부와 접촉된 창구에는 동(銅)망스크린을 부설하여 방충시설을 완비했으며, 특수병환자의 입원실은 한층을 완전히 따로 구획하여 위해방지 및 전염병예방에 안전을 기해 일 반환자에게 안심을 준다는 것이다.

입원료는 시설에 비해 아주 싼데 그 이유로는 성동구 그 주변이 인구는 많고 경제수준은 중



학교 총장이 즐겨 말씀하신다는 “사랑의 실천” 이것은 한양대학교 교훈이기도 하지만 본병원에까지 옮겨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의미를 기독교정신과 함께 이병원전원(환자 포함)에게 반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80여명의 간호원을 거느린 梁莫 芝 간호과장님은 1956년 연세대학교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1961년까지 부산대학병원에 계시다가 부산여고 양호교사로 수년간 근무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모교인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인, 연세의료원에서 5년간 근무하셨으며 유능함이 인정돼 본협회 부총무직을 맡아 지난 3월까지 1년간가까이 협회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다.

본병원 개원전부터 병원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부득이 전입해 가신 과장님은 신설된 병원의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시다.

초창기부터 어느 분야를 막론하

낮은 편임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원들의 보수는 타종합병원보다 높은 편이며 업무량은 신설된 병원이 대개 그렇듯이 어느 관계까지는 바쁘고 많을 거라는 얘기다.

간호원들의 보급자리인 기숙사는 현재 1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오는 가을에는 6,000명을 기숙할 수 있는 동양제일의 기숙사를 확공할 예정이라고 부푼 꿈을 말씀하신다.

이 병원이 내전 못토가 있다면, 김연준 한양대

교 실재없이 바삐 돌아가는 이 병원의 앞날이 간호과장님의 성품과도 같이 그저 위욕에 차있기만 하다.

기자가 잠깐 방문한 동안에도 단정하고 예쁜 간호원들이 친절하게 간호에 임하고 있는 모습은 계속 이 병원의 좋은 인상을 표상해 주었다.

<Lim>

